

구약의 그리스도 설교이해

천국복음 세미나. 이윤석목사 (부르클린제일교회) 1.10.22

** [구약 설교가 빈곤한 이유들]

- 1) 교회력에 따른 설교집의 사용
- 2) 비평적 진영의 구약 연구
- 3) 구약의 거부운동

[Marcion]

- 그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사이를 차별화했다. 그는 144년에 교회로부터 추방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교회를 세웠고, 자신의 특이한 가르침들을 더 널리 전파했다.

- 영지주의자들처럼, 말시온은 이중적 우주관을 지지했다: 물질적인 세계는 악하며,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 선한 하나님(순수한 영)은 이러한 물질적 세계를 창조하실 수 없다. 그에 따르면,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기에, 열등한 신이요 조물주(demiurge)이다, 구약은 율법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준엄한 심판자인 반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 은혜,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이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출해내셨다고 그는 주장한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처럼 상이한 하나님을 상정하고, 또한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외견상의 모순점들을 보았기에, 그는 구약을 거부했고, 신약에서 구약에 대한 모든 언급들을 제거하고자 했다. 그는 구약을 통제로 거부함으로써 기독교 교회는 자신들의 정경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 주후 382년에 교회가 히브리 구약 성경 역시 교회의 정경에 속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 지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개개의 사상가들이 성경 자체가 제시하는 정경(규범, 표준)에 순복하기가 어려웠고, 또한 그들의 모든 사고를 성경에 종속시키는 일도 쉽지 않았다. 참된 성경적 전제들을 갖고 구약을 해석하기 위해 해석학적인 순환 고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비 성경적 전제들로 시작해서 이러한 전제들을 규범(Canon)으로 삼아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뜻이다. 그의 이러한 비-성경적 출발점은 두 개 하나님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성경이 둘로 나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복종하는 대신에 말시온은 성경 위에 군림했다.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개념의 계시관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종교관, 혹은 새로운 윤리관을 받아들임으로써 두 하나님을 말하는 말시온의 발자취를 따랐다. 성경적 정경에 순복하는 대신에, 이들은 어떤 부분들을 열등하고 무가치한 것들로 받아들여 정경으로부터 잘라내었다. 교회 역사를 통해, 구약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는 점에서의 말시온 사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의 감정"이라는 종교에 대한 그의 새로운 이해로 유명하다. 그는 "계시를 종교적 감정들의 영역 속에 있는 새로운 그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며, 이것을 어떤 구체

적인 종교 집단의 삶의 기초적인 것이라고 정의한다...”계서에 대한 이러한 주관적 이해와 함께 구약은 단순히 前 기독교적(pre-Christian)이 아니라 半 기독교적(sub-Christian)으로 간주되게 된다.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어떠한 연속성도 보지 않으며, 대신 “기독교와 유대교 및 이교도와의 관계는 동일한데, 이는 유대교나 이교도로부터 기독교로의 전이는 또 다른 종교로의 전이기 때문이다”라 주장했다. 그는 “만약 구약이 신약 뒤에 부록으로 온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의 추종자 Kraeling은 “이렇게 해서 19세기 프로테스탄트 전통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슐라이어마허는 구약을 극히 종속적인 위치에 놓는 일을 선호했다. 그러나 그는 말시온 진영에 합류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보다 영향력 있게 하는 일에는 주저했다”고 쓰고 있다.

[Adolf von Harnack; 1851-1930]

그는 자유주의적 프로테스탄 전통(Liberal Protestantism)에 영향력 있는 주창자였다. 그는 말시온에 관해 고전적인 저작을 저술한 바 있다. “그는 말시온은 창조주 하나님과 기독교위 하나님을 완전히 두 개의 다른 신으로 간주함에 있어 너무 지나쳤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구약을 구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에 끼친 해를 생각하라고 요청한다. 현대에 있어 기독교에 대한 반대의 상당 부분이 구약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경을 공격하고 조롱하게 만드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르낙은 분류상 구약은 “읽기에 유용하나 권위는 없는 책들”인 외경과 함께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2세기경에 구약을 거부했던 일들은 잘못으로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옳았다. 또한 16세기에 구약을 정경으로 유지키로 했던 결정은 종교 개혁이 피할 수 없었던 운명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 구약을 프로테스탄 전통 내에서 정경으로 여전히 지키는 것은 종교적 무기력과 교회의 마비 상태로부터 생겨난 일이다.”

[Rudolf Bultmann; 1884-1976]

그가 구약을 공공연히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 대해 구약이 갖는 가치를 대단히 제한적이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The Significance of the Old Testament for the Christian Faith" 라는 글에서, 볼트만은 “신약은 구약을 전제하고, 복음은 율법을 전제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 아래 서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구약을 사용하는 것은 순전히 교육적인 어유들에 기인한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 구약은 유대인들에게는 계시가 아니었으며 지금도 더 이상 계시가 아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의 경우 이스라엘의 역사는 닫혀진 하나의 장(a closed chapter)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역사가 아니며,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기에, 이 은혜는 우리를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시의 역사가 아니다. 이스라엘에게 의미를 지녔던 사건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사건들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어느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약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구약은 여전히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

- 오늘날도 말시온의 사상이 도처에 남아 있고, 구약의 이미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의 사상은 구약을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아니면 건성으로 언급할 뿐인 설교자들의 무책임함으로 증식되고 있다.
 - 또 구약을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들의 특이함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대조로” 사용하는 설교자들에게 의해서도 말시온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 오늘날에도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 질문은 수세기 걸쳐 교회를 괴롭혀왔던 질문이며, 신학적인 논쟁의 물을 흐려왔던 질문이다.
 - 이 질문은 무모한 질문이다. 이는 이 질문이 성경 자체로부터 기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 매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신 6:4)는 말씀을 회상했다. 참 이스라엘 되신, 예수님은 이 한 분 되신 주 여호와를 나타내 보이셨으며,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속에 다른 강조점들에 관한 질문이나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한 질문들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서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생각한다는 것은 정경이라는 문맥 바깥으로 나가서 이상한 종교 속으로 이끌어 들이는 행위이다.

4) 구약 설교의 어려운 점들

-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성경이라는 성경적 전제들과 함께 시작한다고 해서, 구약 설교의 모든 난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난제들을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이라는 문맥 내에서 다룰 수 있게 해 준다. 왜냐하면 구약을 무시하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이 설교자들이 구약을 설교할 때 직면케 되는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난제들-문화적 난제들, 신학적 난제들, 윤리적 난제들, 실제적인 난제.

가) 역사적-문화적 난제들

* Donald Gowan은 Reclaiming the Old Testament for the Christian Pulpit에서 말한다: “구약을 신실되게 사용하고자 하는 현대의 설교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 문제는 불연속성(discontinuity)이라는 문제다.” 구약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말이 거의 없어 보인다.

- Walter Kaiser는 “구약을 소홀히 하는 모든 다른 이유들을 압도하는 이슈는 성경이 지닌 역사적 특이성의 문제이다. 즉, 성경의 말들은 자주 구체적인 문화에 속한, 구체적인 시기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있던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점이다.

-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간격이 오늘날 구약을 현실성 있게 설교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 그러나 이 간격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시대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간격을 분별하고 있다는 사실은 구약이 구약

자신의 시대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 하나님 말씀은 초월적인 영원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위에 높이 떠돌아다니지 않았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문화 속으로 의미 있게 들어갔다. 그러므로 역사적-문화적 간격은 장애물이 아니며, 설교자들에게 이런 과거의 의미 있는 상관성들을 발견하고, 나아가 구약의 메시지가 과거 이스라엘에게 의미 있게 전파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의미 있게 설교되어질 수 있도록 도전을 준다.

나) 신학적 난제들

- 수 11:20
- 왕하 1:9-12
- 신 30:9
- 신 30:16

다) 윤리적 난제들

- 신 13:6-10; 16:2-7, 21:18-21
- 시 137:9, 109:6-13

라) 실제적인 난제들

Foster McCurley: “구약은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역사, 문학, 신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들이 필요하다... 신약처럼 1세기 정도의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12세기에 걸친 문헌들과 대략 18세기에 걸친 역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구약 연구의 넓이 자체가 해석자들에게 실로 놀라울 정도로 요구하는 바가 크다.”

2> 신약은 물론 구약을 설교해야 할 이유들

이상의 주요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구약을 설교해야 할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1) 구약은 기독교 정경의 일부이다

- 딤후 4:13
- 벧전 1:12
- 딤후 3:15-17

2) 구약은 그리스도에 이르는 구속시를 드러내고 있다.

- 구약은 창조로부터 그리스도의 초림 직전까지 이르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행위들을 드러내 보여준다. 인간 타락 이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으며, 어떻게 피조 세계에 대한 자신의 다스림 곧 하나님의 왕국을 복원하심을 보여준다. 구약은 하나님 약속들과 이들의 성취는 물론, 수 세기에 걸친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나타내 보인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속 행위들의 오랜 역사를 신약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신약은 단순히 이런 역사들을 전제하고, 이 긴 역사 위에 세워져 있다. 오직 구약만이 구속사를 드러내 보이기에, 구약은 기독교 교회에 필수 불가결하다.

구속사는 여러 개의 막을 갖고 있는 연극과 같다.

제1막은 아름다운 왕국을 세우시고 이 왕국에서 왕으로 존경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제2막은 이 왕국에서 벌어지는 쿠데타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인간들이 사탄과 손잡고 하나님에 대해 반기를 든다. 2막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징벌은 물론, 자신의 왕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으로 끝을 맺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악의 동맹을 깨트리시고, “여인의 후손”과 “악한 자의 후손”을 서로 원수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2막에 이어 수많은 막들이 이어지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막들의 정점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으로서,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후손들과 땅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우주적인 설계에 주목하라),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의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다(창12:3;참조, 사2:3=미4:2), -또 다른 정점들로는 출애굽 사건과 다윗 왕의 통치, 포로들의 귀환들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클라이막스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클라이막스는 신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친히 세상을 구하시려 보내심으로 도달케 된다.

-같은 선상에서, 연극 앞부분을 알지 못하고는 연극 종막을 이해할 수 없듯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러한 클라이막스의 행위는 먼저 하나님의 이전 구원의 행위들을 알아야 만이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원 행위들이 오직 구약에만 기록되어져 있기에, 구약 이야기를 설교한다는 것은 기독교 교회에 필수불가결하다.

3) 구약은 신약에서 발견되지 않는 진리들을 선포하고 있다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구약을 사용해 사랑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보이셨다(막 12:29-32). 그러나 신약은 구약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며, 단지 구약의 가르침을 전제하는데, 이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예) 오직 구약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포괄적인 계시, 즉 자신의 피조물들과 철저히 구별되는, 주권적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 오직 구약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와의 교제를 위해, 또한 인간 서로간의 교제를 위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으며, 동시에 온 땅을 다스리

고 보호하라는 위임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배운다. 오직 구약만이 우리는 인간 타락과 그에 따른 죽음과 깨어짐 그리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원수됨을 볼 수 있다. 오직 구약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사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한 교두보를 삼으신 말씀을 듣게 된다. 오직 구약에서만 우리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십계명), 축복과 저주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오직 구약에서만 우리는 오실 메시아와 주의 날에 대해 들을 수 있다.

= 구약의 다양한 가르침들은 하나의 포괄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곧 구약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이의 상호 관계들을 포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중요한데, 이는 이 세계관이 하나의 표준 구조물(grid)을 형성함으로써 이를 통해 모든 자료들을 분류하고 해석하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 속의 우리의 위치와 사명을 깨닫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구약의 세계관은 다신교나 범신론, 영지주의, 이신론, 무신론, 그리고 자연론 등과 같은 다른 세계관들과 아주 다르다. 신약은 다른 세계관을 보여 주지 않으며, 단지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을 뿐이다.

= 이러한 근본적 가르침 외에, 구약은 신약에서 반향되고 있거나 혹은 반향되고 있지 않는 많은 다른 가르침들을 제공하고 있다.

- 예) -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사 10:5-19; 하박국);
- 하나님의 양립 불가성(사 40:12-31);
-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욥기, 시편);
- 사회정의를 증진시켜야 할 인간의 책임성(신 15장, 아모스, 미가, 이사야),
- 성적 사랑이라는 선물(창 2:18-28, 아가서);
- 새 땅에 대한 소망(사 11:6-9; 65:17-25).

설교가 이러한 구약의 가르침들을 결여한다면,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Michael Duduit는 “우리가 우리의 설교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교인들은 신학적으로 깊이가 없는 평범한 집단으로 전락케 될 것이다” 판단한다.

4)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신약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 마 26:28 피의 언약
- 고후 6:16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
- 갈 6:16 하나님의 이스라엘
- 벧전 2:9 왕같은 제사장
- 마 28:18-20

- John Bright는 이런 많은 구약 개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신약은 ...[교회]를 참 이스라엘로,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종의 백성으로 이해했으며, 교회의 소명은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의 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왕국의 언약 교제에 참여하도록 명함을 받았다.”

- 이외에도 신약은 구약 없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다른 이미지들과 개념들로 가득 차 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 구원, 선지자, 제사장, 왕, 속죄, 율법,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 인자, 선한 목자, 하나님의 종과 같은 개념들을 생각해 보라. 구약 설교는 회중들로 하여금 신약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5) 구약은 신약을 잘못 이해하는 일을 막아준다

마 4:17 “천국”이 무엇인가?

요 18:36 예수님의 대답

F.F. Bruce는 “예수님은 [구약이란] 자신들의 유산을 잘 인식하고 있던 그런 청중들을 향해 그들 마음 속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셨다”고 한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왕권은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의 예배의 지배적인 주제였다. 창조와 역사 속에 나타난 여호와 의 위대한 행위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온 땅의 왕으로 경배받게 될, 다가올 그 날의 모습을 미리 보여 주고 있다” 주장한다. 구약의 분명한 기대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통치)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벧후 3:13; 계 21:1

분명히 구약을 배경으로 신약을 읽지 않을 때 생겨나는 위험 중 하나는 신약의 가르침에 대한 중대한 오해다. Marvin Wilson은 “어디서부터 교회가 잘못 되었는가”라는 냉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히브리적 기원들의 문맥 속에서, 교회가 배워왔고, 믿어왔던 바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라는 바울의 권면에 교회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교회는 더욱 더 헬라화되어 갔으며, 이상한 가르침의 기저에는 보다 고상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열등하고 가시적인 물질적 세계를 구분하는 헬라적인 이원론적 사고가 (세계관) 놓여 있다. 이 사고에 따르면 이 두 세계가 개개의 인간 속에 보다 고상한 영적인 혼의 형태와 보다 열등한 물질적인 몸의 형태로 존재한다. 플라톤에 있어서 몸은 혼의 감옥이며, 구원이란 죽을 때 혼이 감옥에서 벗어나 순전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원론적 창을 통해 신약을 읽음으로, 교회는 물질적 세계와 우리 몸을 수없이 평가절하 해왔다. 금욕주의(골 2:20-23), 독신주의, 내세주의, 세상으로부터 도피로서의 구원과 같은 이상한 가르침들을 부추겨 왔다.

A.J.B. Higgins는 “우리는 구약이 기독교에 대해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것처럼 한쪽에 방치되어졌을

때 신약에 일어날 수 있는 폐단들의 온전한 예를 말시온에게서 보게 된다”고 했다.

Marcion은 교회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그의 이원론적 견해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오래된 적군[영지주의]이 여러 가면을 쓰고 다시 돌아왔다. 뉴 에이지의 형태로 혹은 다양한 동방종교들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 속에도...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전혀 무용한 그런 기독교 신앙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 신앙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삶의 실천과 무관한 신앙이며, 지금 여기서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신앙이다. 이것은 복음을 하나의 편협한 미래-지향적인 영지주의로 환원시키는 일이다.

물론 우리 모두 자신의 전제와 편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신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전제는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을 구약의 문맥에서, 또한 구약을 신약의 문맥에서 이해해야 할 당위성이 생겨난다. “구약은 복음과 역사를 한데 묶어 준다. 구약은 성경을 이교적 철학과 이데올로기들과 동화하지 못하도록 지켜 준다. 감상적이고 편협된 내세 지향적인 경건으로 전락시키지 못하게 해준다. 우리를 너무 쉽게 에워싸고 분열케 하는 개인주의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성벽이다.

6)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충만한 이해를 제공한다.

구약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역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 신약의 어떤 다른 설교보다도 더 충만한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구약이 자신에 대해 증거했다고 가르치셨음은 물론, 자신의 삶을 통해 구약 성경에 따라 그대로 사셨으며, 구약을 성취하셨고, 구약을 가르치셨다.